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의 회심 기념 27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후 교육관에서 5월 정기임원회가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한 기도회가 오늘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기도회 후에 '재난을 겪고 견디는 마음'에 대한 특강 (강사; 한상익 장로)이 있습니다.

생협에서 사과나무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분양 가격은 11만원(택배신청시 2만원 추가)이고 사과 5박스, 사과즙 1박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행 1:1~11 / 시 47
엡 1:15~23 / 록 24:44~53

록 13:10~17
------------

오늘 식당 봉사 : 김금순 이은정 서수진 이수정 이선화 최영혜 김기성
다음 주 식당봉사 : 박성실 윤영미 김향자 김혜정 류정옥 이광재 허호범
오늘설거지봉사 : 3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4남선교회
떡 대 접 : 한세미 (부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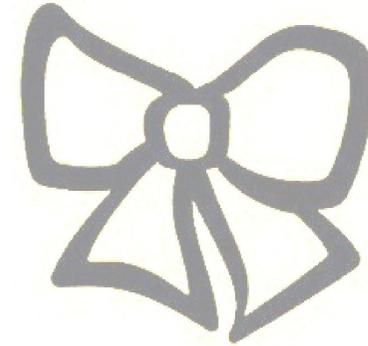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그보다 더 큰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맘몬을 숭배하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개발과 편리와 이윤이 수많은 생명의 희생을 담보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절제와 나눔을 실천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화려한 꽃들이 피어나는 오월에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쓰러져간 생명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들의 삶을 감사히 기억하고,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뜻을 이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정윤성 선생  
박석희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재 훈전도사  
김기석 목사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속이	김경혜	김문주	김성우	박유경	김신실	김용진	박효선	김정수
김주영	김준현	성귀옥	김준호	곽혜자	김훈동	유경순	박영희	박인혁
박준희	이기분	변재민	이소혜	심상숙	양상철	박재란	원인해	윤미경
윤정덕	구성실	윤주원	최윤선	이광용	형인순	이부곤	이순용	이왕준
송상경	이윤석	박안수	이준림	이증자	김창경	이현순	임성은	장기욱
장동훈	정은선	장아름	장원호	박성희	정선희	정우선	정종삼	정현선
정현선	조경자	조문규	진정숙	최재욱	이수정	하현철	최성애	허신열
강금연	허준호	홍복선	홍성식	이유리				

### 감사헌금

강순배	권미정	김일랑	이은옥	나오미1	나오미2	나오미1	나오미2
문금석	박창운	허정윤	이범석	류정욱	이종현	전인섭	정복순
차혜심	노미향	한미영	한성자	주명재	허신열	강금연	홍성식
무명12							이유리

### 생일감사헌금

권민준 윤미경

### 녹색꿈헌금

김용진 박효선 박호규 강영님 정선희 정현선 무명1

	백혜숙	박성희	박성희	정두리
	신진식	최경미	이재문	이소순
	장영숙	신영신	박정숙	장영숙
	노순옥	진정숙	박진정	노순옥
	박홍재	박홍재	백묘현	문복순
	권미숙	박미영	허정윤	배상순
	김금순	김금순	유금주	김금순
	곽권희	윤수진	윤수진	김필순
	안홍숙	오현정	임영선	김명희
	정영선	홍춘숙	김희우	송양진
	박혜경	박혜경	임창선	조향미
	김재흥	오자영		
	김재흥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종		

# 돌멩이 하나

- 김남주

하늘과 땅 사이에  
 바람 한 점 없고 답답하여라  
 숨이 막히고 가슴이 미어지던 날  
 친구와 나 제방을 걸으며  
 돌멩이 하나 되자고 했다  
 강물 위에 파문 하나 자그맣게 내고  
 이내 가라앉고 말  
 그런 돌멩이 하나/  
 날 저물어 캄캄한 밤  
 친구와 나 밤길을 걸으며  
 불씨 하나 되자고 했다  
 풀밭에서 개똥벌레쫓기로나 깜박이다가  
 새날이 오면 금세 사라지고 말  
 그런 불씨 하나/  
 그때 나 묻지 않았다 친구에게  
 돌에 실릴 역사의 무게 그 얼마일 거냐고  
 그때 나 묻지 않았다 친구에게  
 불이 밀어낼 어둠의 영역 그 얼마일 거냐고  
 죽음 하나 같이할 벗 하나 있음에  
 나 그것으로 자랑스러웠다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샅되고 헛된 것에 시간과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의로운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애써 외면하며 나만의 길을 가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삶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새롭게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겠습니다. 앞서 가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써 뒤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세월호 기도회 및 특강	오편기 / 김기석 목사 기도 : 윤수진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재흥 목사	조지연 선생 김현주 집사

5월	영접위원	윤석철 하현철 문홍일 김금순 강순배 장혜숙
	헌금위원	김인걸 안홍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믿음으로 읽는 글

## 인권운동가 김형률, 그의 삶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03년 가을, 형률 씨는 서울 면목동에 있는 녹색병원에서 한 달 반 동안 입원해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홍세화의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를 선물 받았다. 이 책에서 그는 ‘тол레랑스(tolérance)’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는데, 늘 마음의 짐으로 존재했던 건강한 원폭 2세와 원폭 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 2세 환우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고 느꼈다. 수신자를 알 수 없는 어느 이메일 파일에 그는 책에서 읽은 문구를 적어두었다.

홍세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тол레랑스’는 잘 모르지만, 원폭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올바른 해결 방법으로서 ‘тол레랑스’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념과 신념이 당신에게 귀중한 것이라면 남의 그것도 그에게는 똑같이 귀중한 것입니다. 당신의 그것들이 존중받기를 바란다면 남의 그것들도 존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тол레랑스의 요구이며 인간 이성의 당연한 주장입니다.

тол레랑스는 당신에게 당신과 다른 것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인정하고, 외국인을 인정하고 또한 당신과 다른 생활방식, 다른 문화를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тол레랑스는 당신이 존중받기를 원하면 우선 남을 존중하며, 당신의 정치적 이념과 종교적 신념이 존중받기를 원하면 우선 다른 사람의 정치적 이념과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며, 당신과 다른 인종과 국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며 그리고 당신과 다른 생활방식과 문화를 존중하라고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당신 것’이 존중받으려면 ‘남의 것’부터 존중하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실제 사회생활에서 тол레랑스는 소수에 대한 다수의, 소수민족에 대한 대민족의, 소수 외국인에 대한 다수 내국인의, 약한 자에 대한

강자의, 가난한 자에 대한 가진 자의 횡포를 막으려는 이성의 소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권력의 횡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의지로 나타납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의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핵무기 희생자들인 한일 원폭피해자들이 대동단결하여 원폭피해자로서 당연한 법적 권리를 되찾아 인권 보장과 인권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원폭2세환우회도 원폭 피해자들의 인권 보장과 인권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분명 형률 씨가 원하던 것은 모든 원폭피해자들의 대동단결이었다. 그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할 뜻이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형률씨에게 침묵을 강요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침묵하기 쉬웠던 바로 그 순간에 그는 모든 부담을 떨치고 일어섰다. 그리고 모두에게 외쳤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싶다고. 여기에 인권운동가 김형률의 위대함이 있다. 그는 자신의 역경을 발판으로 삼았다. 아픈 자의 인권이 사안의 핵심임을 그는 인식했다. 이것은 동시에 김형률의 인간적인 위대함이기도 했다. 그는 인간된 권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을 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지만 동시에 모두를 껴안고자 했다. 그의 투쟁은 결코 증오의 산물이 아니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부모님과 형제자매, 국경을 넘은 모든 직간접적인 원폭피해자들,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이 뿌리내린 이 세상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았다. 이 모든 믿음과 사랑의 근원에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자리하고 있었다.

- 전진성, 김형률 평전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중에서

김형률, 그의 어머니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이셨고 그로인해 그는 ‘선천성 면역글로불린 결핍증’이라는 희귀병을 평생 앓았다. 그는 병마에 시달리며 숨어 지내던 비슷한 처지의 피폭자 2세들을 찾아 2002년 환우회를 결성하고 자신들의 참상을 세상에 널리 알렸다. 그는 2005년 5월 29일, 35세의 나이로 영면했다.